

# “조계종, 종단기구 운영에 에너지 소모”

## 법진 스님, ‘한국불교와 조계종’ 세미나서

“종단은 기구 운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종단의 에너지는 종도를 교육하고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조계종 종단 기구를 누수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요원들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前 해인사 강주법진 스님(사진)은 4월 28일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개최한 ‘한국불교와 조계종’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통합종단 50년을 맞은 조계종이 나아갈 길을 전망했다.

법진스님은 “현재 종단은 정치, 권력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종단 행정수반이 총무원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구 실무자는 국가공무원 준하는 전문행정요원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가 생산한 막대한 양의 부동산을 조계종이 승계했음에도 전문 관리 그룹이 없다고 지적한 스님은 “전문 행정가를

양성해 종정기구의 업무를 맡기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며, 출가 대중의 정치 지향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종단의 종명, 종조, 종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특히 종명에 대해 법진 스님은 “조계종이 한국불교사를 송두리째 계승한 유일무이한 계승자지만, 선종으로 치우친 종명으로는 이를 답아낼 수 없다”며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종명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지에 대해서도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되나 계율, 유식, 화엄과 같은 다양한 전통들이 종단 종현에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종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유언에 맞지 않다. 설사 종조를 내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한국불교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분을 종조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진 스님 (왼쪽)과 조기룡 (오른쪽)

### 전문가 양성 등 대책 세워야 종명, 종지 변화 고민도 필요 불교 미래 위한 제언 쏟아져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은 조계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조계종 통합종단 50년의 3대 사업에 대한 성찰’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승가교

육, 포교, 역경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승가교육 현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조 교수는 “하지만 교과과정의 현대화에 치우치다보니, 종사(宗史), 종학(宗學)에 대해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국대 불교대학에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을 반영하는 방안도 향후 마련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포교의 현대화를 위해 기부, 산중 불교를 탈피해 사이버 포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정의 성과를 이룬 역경사업은 완간된 한글대장경의 개역과 디지털화, 전문가 양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김경진(전국대학 겸임교수), 김용태(동국대 HK교수) 등이 전근대, 근대, 통합종단시기로 시대를 나눠 각 시대의 종단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종교 간 대화로 평화 모색해야”

### 법현 스님 KCRP 심포지엄 기조발제

KCRP가 주최하는 이웃종교화합주간 심포지엄이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웃종교화합주간 첫 행사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윤열 유엔종교간행회총회한국협회 대표 ▷법현스님(영린선원장) 이 기조발표로 고 지경토론으로는 ▷박경조 성공회 주교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이상기 아시아뉴스 대표 ▷김진화 전 KBS 해외특파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새로운 옛길을 걷고자-한국종교 대화운동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한 법현 스님은 “한국 사회는 삼국시대부터 다종교 사회였고 종교간 대화의 한 틀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200여 년 전에 가톨릭을 시작으로 유일신교가 본격적인 상륙을 해서 다름이 있기는 했지만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 인사들이 연대해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여러 종교인들이 연대해서 조국의 광복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서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님은 현재, 불교와 기독교 등 한 종교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스님은 “기독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법현 스님

다두고 불교는 한국이와 대안이 다름이다. 우스갯소리가 있다.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종교 간에 다름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유

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에 대해 ▷종교간 대화인종교대화인종교 대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인종교대화인종교 대화의 같은 느낌과 다른 이해 ▷구체적 목표와 종교 교리의 관련문제 ▷기독교도들의 이웃 종교 배척과 불교 등의 적은 노력 ▷참여자와 재원의 문제 등에 대해 얘기했다.

스님은 이런 문제를 위해 각 종교는 다름의 존재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전통 신념과 교리체계가 다른 종교인들 간의 대화와 화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화합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겉순하고 진지하게 작은 것이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 “특정 정당 아닌 자질 · 공약 평가”

### 손혁재 교수, 불교사회학 세미나서

#### 불교계 선거감시운동 참여 역할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일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이 아닌 각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먼저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짚었다. 손 교수는 “불교계는 역대 선거에서 공약하기 쉬운 표밭이었다”며 “정치권에게는 ‘총무원만 잡으면 끝난다’는 인식이 있다. 후보자들 역시 불교계 공약과 정책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영향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손 교수는 “불교계가 특정 정권과 정치인에 매달림으로서 정치인들이 불교계를 쉽게 보고 불교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18대 대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대한 자질과 공약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교수는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한 공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



엇보다 후보자들이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 능력 △민중성과 개혁성 △일관성과 책임감 등을 갖춘 인물인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불교계가 시민사회와 함께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불교계는 중립적 입장에서 바른 대통령 만들기 운동이나 부정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계 시민사회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대하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가 ‘2012년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와 전망’을 주제 발제했으며,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퇴직스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 “관행 버리는데서 포교 시작된다”

###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 스님, 전법단 2주년 토론회서 강조

“불자 전체가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4월 30일 포교원(원장 지원)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법단 출범 2주년 기념토론회에서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포교현장에서의 혁신을 강조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는 그 무엇보다 원력이 중요하지만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법단 참가자들의 포교현장에서의 변화를 주문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현장 관계자들에게 포교원 차원에서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했다.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님부터 매년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인사사고가 시행중이지만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 지는 미지수다.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포교활성화를 위해 분산돼있는 포교전력을 중앙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포교예산을 합하면 수천억 단위가. 포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힘을 모아 종단 공통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DB구축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전법단 2주년을 맞아 전법단 활동이 포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스님은 “전법단은 1단계 구성의 단계를 넘어 조직 강화와 활동을 펴는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포교원의 전법단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스님은 전법단 활성화 계획으로 △불교 임상전문가 지속 배출 및 병원법당 영역 확대(병원전법단) △경승 지도법사 일체화 및 상급자 확보(경찰전법단) △민간성직자와 군승 유기적 결합 유도(군전법단) △파라미터 등 연계 및 법사 네트워크 조직(대학생전법단) △불자교도관 양성(교정교화전법단) △장애인 법회 시설 확보 및 템플스테이(장애인전법단) △체육인 신행지도 및 홍보(적능체육전법단)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고관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성료

한국고관화학회(회장 한선학)는 4월 28-29일 원주 명주사 고관화박물관에서 1차 춘계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차미애 박사의 중국화보의 한국회화와 관화에 끼친 영향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한선학 고관화박물관 관장,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 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소장, 소재구 문화재연구소 보존실장, 정병모 경주대 교수, 박도화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20여 관련학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고관화박물관이 소

장하고 있는 화보 유물인, 중국 명 시대 고씨화보와 팔중화보, 방시목보, 심숙재 화보를 비롯한 중국화보와 일본과 한국의 화보가 공개됐다.

한편, 이어 진행된 고관화학회 회의에서는 8월 경 명주사 고관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삽화판화 한중일 국제학술회 및 워크숍에 고관화학회 차원의 적극 참여가 결의됐다. 또 6월 말 동경 마치다 시 국제관화박물관에서 제2차 해외 학술 담사를 진행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문화재위 발족 50년 회고 기념식 열어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4월 30일 서울 한국외대 컨벤션에서 ‘문화재위원회 발족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문화재위원회 50년, 그 고귀한 열정과 울림’을 주제로 전직 문화재위원장 등 전·현직 문화재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활동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선언문’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육임 각 활용서, 각 CD프로그램 10일간 50% 대 할인

◆ 할인기간 (5월 8일 - 17일) 선택하신 정가에서 50% 금액만 입금 하십시오 ◆

###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350만원
-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 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 기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정가650만원 (각피별 확정)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